

5월 12일 오늘은 여느 5월 날과는 달리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사실 어제인 11일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왔는데, 그 날씨가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매우 춥고, 흐릿하였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졸업시험에 한창이었다. 목요일에 졸업시험이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시험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가서 2시간정도를 운동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우리 집 근처에는 해밀도서관이라는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있는데, 시설이 괜찮아 공부하기에 좋다. 오늘도 갔더니 역시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시험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았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남녀노소 붐볐다. 그래도 다행히 자리가 있어, 공부할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범위가 많은 건지, 집중이 안 되는 건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이걸 오늘 뿐더러 평생을 걸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정말하기 싫은 공부를 강제로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학교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였다. 오늘 학교수업은 야간 7시 50분부터 진행되어 도서관에서 학교까지는 2시간이 걸리므로 2시간 전에 출발하였다. 가다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상관없는데, 바람까지 많이 불어 기분도 다운되었다. 학교가기가 정말 귀찮았다. 그래도 이번 학기는 4학년으로서 최소한 출석은 잘하자고 마음을 먹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1,2,3학년 때만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학교를 빼먹었는데, 4학년이 되고나니 졸업반이라 그런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학교에 생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늘 항상 이렇다. 일찍가면 빨리 도착하고, 딱 맞게 가면 늦게 도착하는.. 참 아이러니하다. 오늘도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귀찮았다. 사실 수업보다도 집에 가는 것이 귀찮았다. 밤이 되니 바람도 더 불고, 비까지 오니.. 다행히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맑단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른 일상은 없었다. (물론 날씨는 최악이었지만) 참 요즘에 내가 느끼기에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바쁜 것 같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학기가 시작되고 하루도 제대로 쉰 날이 없는 것 같다. 과제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중간고사가 끝나니, 졸업시험과 자격증시험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또 과제 그리고 기말고사 까지. 이번 여름방학에는 인턴쉽도 신청해놓아서 사실상 7월 말 까지는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다. 그래도 뭐 다 좋으니 오늘과 같이 날씨만 흐릿하지 않았으면, 비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